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7. 25.(화) 06:00 < 7.25.(화) 석간 > 배포 2023. 7. 24.(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되다

- 부산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 열려
- 정명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지지 기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박람회 유치 홍보에 앞장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하 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7월 25일(화) 오전, 부산시청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1호 홍보대사 이정재('21.12월), 제2호 홍보대사 가상인간 로지('22.3월), 제3호 홍보대사 방탄소년단('22.7월), 제4호 홍보대사 조수미('22.12월), 제5호 홍보대사 아기상어('23.3월)에 이어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현, 파리국립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 의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응원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세계적 공감대와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각종 유치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	책임자	홍보팀장	김용건 (02-2036-9840)
		담당자	사무관	김혜진 (02-2036-9842)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2030엑스포추진본부	책임자	유치홍보과장	명지정 (051-888-6420)
		담당자	사무관	황정심 (051-888-645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